

화요세평



문정기

광주·전남과총부회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보통사람으로
는 얼른 이해가 안 가는 어려운 얘기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를 벨트로 딱 묶어
놓는다는 뜻 정도로 해석하면 큰 무리는
없다. 사전에 안 나올뿐 아니라 검색엔진
에서 결과도 시원찮다. 외국어로 바꾸면
더 더욱이 마땅찮다.

지방마다 사할 건 유치전 기열

이 용어 자체는 이명박 정부의 선거공약
5번째에서 비롯됐고 잘못된 공약은 안 지
켜도 된다는 대통령의 어긋난 표현 때문에

세종시와 함께 지금은 정부의 강력한 딜레
마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과
학 종사자들만의 일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
의 관심사 중의 하나가 돼 어찌 보면 과학
의 일반화,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
겠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원래 과학이란 비즈니스하고는 전혀 상
반되는 개념이다. 애당초부터 과학이 나아
갈 길과 비즈니스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를
뿐 아니라 목표도, 방법도 하나도 같은 게
없다.

이명박 정부의 공약을 떠나 실질적 문제
로 가보자. 무엇보다도 내로라 하는 전국
의 주요도시가 벨트 유치에 위해 소위 사
활을 걸 세인가. 오솔단지처럼 3조5,000
억 투자로 213조를 생산하고 고용효과가
136만 명에 이른다니 그 수치만으로 지자체
에 주는 매력은 정말이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다. 이제 바로 국제과학비
즈니스벨트의 꿈이라라. 매력덩어리인지
라 지자체에 정치인들도 답답아 끼어들어
"우리가 최적지"를 외치며 전국이 난장판
이 되고 말았다. 그 싸움판은 크케는 영남-
호남-충청, 자세히 보면 대구-경북, 광주-
전남, 대전-충남과 같이 시·도가 짝짓기

로 끼어 있고 최근 과천-경기까지 가세해
전국 3~4개의 블록이 된다. 여기에 천안,
포항, 새만금까지도 합하면 더욱 문제가
복잡해진다.

그런데 이 지역이라는 게 정치적 구도와
도 똑같이 격정이다. 과천-경기는 수도권,
기타는 지방, 지방에서는 호남, 영남. 충청
으로 동서남북이 서로 갈라져서 깃발을 쏘
으며 한다. 하나로 합쳐도 선진국의 몇 십
분의 일 내지 몇 백분의 일 정도인데 사분
오열하는 모양이 참으로 심한다. 바야흐
로 곧 유치전쟁이 시작되었지만 서로간의
입장차가 커서 좀처럼 해결 기미가 없어
보인다. 담당공무원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주요 언론에서도 입장을 밝히기를 꺼리는
걸 보면 얄만해도 핫이슈는 핫이슈인가 보
다. 필자가 그들을 대신해 반대논리를 내
보고자 한다.

국력의 70%가 서울·경기인데 연구단
지도 이미 관심을 잃었다. 부화뇌동하지
말자, 새로운 국가의 모멘텀이 필요하다.
떠들다고 될 일도 아니다. 힘 없으니까 밀
어 붙여 보자는 것인가, 4년 전에 1등 후보
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등이
다. 끝으로 이 사업에 진정으로 관심과 열

정, 그리고 책임이 있다면 다음 질문에 스
스로 답해 볼 것을 권한다.

과학적 시각으로 입지 선정돼야

과연 우리에게 충분히 동원 가능한 과학
인력이 있는가, 동일한 재원과 인력 수준
으로 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다른 건 없
는가, 현시점에서 국내외 과학자나 연구소
의 정주(定住)여건은 어떠한가, 기초과학
에 대해 어느 정도 투자했는가, 과연 과학
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어느 정도의 경험
과 실적이 있는가, 지역민의 삶을 향상하
기 위한 또 다른 대안은 없는가, 국내외 유
사한 실패/성공사례를 충분히 학습하였는
가, 타 지역이나 외국과의 차별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이제 곧 4월이 시작된다. 가족이나 나라
가 시끄럽고 바다가 요동치며 중동이 불덩
이이고 하늘에는 구제역 바이러스다 방사
능 낙진이다 하여 지구가 온전치 못한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계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가 하는 생각이다. 열리듯이 얘기
한 것인데 4월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 간
절하다.

사설

금호타이어, 지원중단 신호 안들리나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금호타이어 노
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회사는 노
조원들에게 파업 불참 약속서 제출을 요구
하는 반면 노조는 불법적 직장 폐쇄를 단장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채권
단의 지원 중단이 현실화될까 걱정이다.

금호타이어 공장은 어제 현재 4일째 정
상가동을 못하고 있다. 광주공장 514명,
곡성 103명이 조업에 참여, 공장 가동률은
기껏 20%에 그치고 있다. 회사측은 조업
참여자들이 대부분 파업 불참 약속서를
썼다고 밝혔다. 달리 말해 약속서가 제대
로 제출되지 않으면 공장의 정상가동은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다.

노조의 반발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 회
사가 약속서를 구실로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
지만 서로의 주장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분규가 지속되는 건 비난받아 마땅하다.
당장 협력업체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협력업체협의회는 지난해 금호의 워크아
웃으로 5개월간 대금지급이 미뤄져 큰 어
려움을 겪었음을 호소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채권단이 지원 철회 의
사를 밝혀왔다는 점이다. 워크아웃 상태
인 회사가 정상화에 매진하는 게 아니라
노사간 분규에 휩싸여 있으니 지원할 수
없다는 메시지다. 노조가 채권단의 지원
철회를 '노조 조직력 와해'를 위한 압박
카드로만 보는 것은 위험하다. 지난해와
달리 정작 지원중단이 현실화된다면 그
과파력은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노사는 회사에 불안한 시선을 보내는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
다. 강운태 시장의 말처럼 금호타이어는
어려울 때마다 시민이 도와준 회사다. 워
크아웃에 들어간 것마저 겸허히 반성하고
노사가 성실히 대화에 나서야 한다. 회사
가 극단적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서로 지
혜를 발휘해줄길 바란다.

혁신도시 지역업체 참여 폭 더 늘려야

나주에 조성중인 광주·전남공동혁신
도시의 각종 공사가 잇따라 발주된다. 올
해에만 1조5,000억원 규모의 공사가 발주
될 예정으로 사상 최악의 집체해 빠진 지
역 건설업체로서는 가뭄의 단비가 아닐 수
없다. 공동도급제에 따라 지역 업체들도
각종 공사에 참여할 예정이나 참여폭이
제한적인 것이 아쉽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올해 발주 규모는 총 1조5,000억원에 가깝
다. 이전기관 청사 착공에 따른 공사비
9,800억원, LH 기반시설비 2,300억원, 한
국난방공사의 열병합발전소 건설비 2,700
억원 등이다. 지역내에서 발주되는 건설
규모로는 보기 드문 대규모 공사다.

지역 연고 건설업체들은 한층 청사 등
이전기관 건축 공사에 참여하게 된다. 지
역 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의
공동도급제'가 적용된대 따른 것이
다. 9,800억원대에 달하는 청사 신축 물

량 중 건축공사비의 최대 40% 가량이 지
역 업체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동도급제 외엔 참여 방안이 사실상 막
혀 있다.

현재 지역 건설업체는 사상 최악이다.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부도를 맞아 채권
단과 법원의 손으로 넘어간 업체 수는 줄
잡아 100여곳에 달하며 올해도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
로 전반적인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기약조차 없다.

외중에 수소원대 초대형 공사가 시작
된다는 점은 정부로서도 부동산경기 회
복과 지역 건설업체 회생이라는 일석이
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혁신도시 조
성공사가 이제 갈 길 얼마를 시작할 만큼,
지역업체 참여 확대는 의지의 문제이다.
공동도급제처럼 지역업체 참여 폭을 높
일 수 있는 방안을 과감히 도입해 줄 것을
주문한다.

기자수첩

야권연대 기준과 원칙이 우선이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
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4·2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야권연대 협상이 난항
을 거듭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말의 의
미가 더욱 절실해진다.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도 확인 했
듯이 야권연대는 야당의 화두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더
더욱 그렇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4·27 재보
궐선거에 출마할 김해를 후보 단일화
협상을 둘러싼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중재안을 내
고 22일까지는 시한으로 잡고 협상을
재촉하고 나섰다. 국민참여당은 시민
단체의 중재안인 시민단체의 여론조사
50%와 국민참여당 50%안에 대해 부
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여론조
사 100%안을 고수하고 있다.

선거때면 터져 나오는 야권연대를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도 따갑다. 그때
그때 지역과 인물에 따라 다른 협상방
법 때문이다. 지난해 7·28재보궐선거
에서 은평을 유권자 450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나 파관을 넘
은 후보가 나오지 않아 1, 2위를 기록한
장삼 민주당 후보와 천호선 참여당 후
보 간 2차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실시했
다. 결국 장 후보가 천 후보에 앞서면서
야권 단일 후보로 선정됐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
사 단일후보 선정에 있어서는 민주당



강병운
서울취재부장

김진표 후보와 참여당 유시민 후보가
맞붙었다. 국민참여당 50%와 여론
조사 50%로 실시된 경선에서 유시민
후보가 0.96% 앞서 야당 단일 후보로
선정됐다.

경기도지사 단일후보 선정 이후 결
국 민주당 후보가 아깝게 패했으나 당
내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민참여당
경선방법에 가깝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야권연대를 위
해 순천지역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
특히 양보를 실천한 셈이다. 당리당락
만을 고집하는 국민참여당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내년 총선에서는 많은 지역에서 야
권연대 협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체에 야권연대 협상에 대한 확실한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
또한 확실한 기준과 원칙이 정해지면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야권연대라는 명분에 집착하는 것
보다 원칙을 지키고 실천하는 야당의
모습에 국민들의 신뢰가 집중되는 것
은 당연한 일이다.

독자광장

치매환자 위치추적시스템 도입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고령화 사
회 진입으로 인해 치매인구가 급증, 2010
년 치매유병률이 65세 이상 노인 중
13.4%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112신고 사건 일부를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가 치매로 인한 미귀가자 신고이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보호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집을 나간 후 수
시간 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는 치매 진단자에게 각 가정
에서 치매 환자의 행방불명 방지를 위해
주로 환자의 이름, 주소 등 연락처를 적은
팔찌나 이름표 등을 손목이나 목걸이에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치매 환자를 발견한 사람이 연
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 치매환자
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단을 분실하는
경우 가족을 찾기가 힘든 문제점이 있다.

GPS를 이용한 치매환자 위치 추적 시
스템을 활용할 경우 배회하는 치매환자
의 위치를 파악하여 길을 잃은 경우나 응
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가속도 센서를 활용한 낙
상사고 파악 및 응급처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함평경찰서 김주영

청소년 흡연에 부모 역할 중요

아직 신체가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청
소년기의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성
인 흡연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질병 발생
과 조기사망의 원인이 되며, 니코틴 중독
으로 인한 성인흡연자로 이어질 확률이
높았다.

청소년들은 최초로 흡연을 경험한 이
후 또래의 관심 등에 의한 사회적 강요,
심리적 독립감의 경험 등을 통하여 지속
적인 습관을 하게 됨으로써 흡연이 하나
의 습관행동으로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는 흡연예방교육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흡연예방프로그램을 정규교육과정에서
실시해야 하며, 담배가격 인상, 19세 미만
자에게 감배판매 및 공공장소에서의 흡
연행위 감시, 공영방송 및 대중매체에서
의 흡연 장면 금지 등의 사회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청소년 흡연은 흡연하는 부모나 또래
에게서의 모방에서 시작되며 호기심이
담배를 피우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하
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흡연은 시작하
기 전에 교육을 통해 예방을 해야 하는 것
이 중요하다.

/광주지방경찰청 27기동대 박병용

진남매일은 독자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신문입니다. '독자광장'은 독자 여러분의 글과
사건·시를 실는 자리입니다. 굳이 전문가 수준의 좋은 글, 훌륭한 사진이 아니어도 좋습
니다. 진남매일을 독자 여러분의 신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 전화 : (062) 720-1075
• 팩스 : (062) 720-1080-82
• 이메일 : jndn@chol.com

오늘의 운세

48년생 소문을 너무 믿지 말고 자신
을 믿어라. 60년생 분명하게 의사표
현을 하라. 72년생 넓은 곳에서 행운
이 생겼으니 야외로 나가 보라. 84
년생 뜻밖의 약속이 생기는 날이다.

39년생 모든 혹은 언행으로부터 생기
는 법. 51년생 일이 갑자기 바빠져서
정신이 없다. 63년생 생활의 여유가
생기고 마음 편한데 집. 75년생 다짐
도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좋다.

42년생 마음이 상하면 일도 잘 되지
않는 법이다. 54년생 동분서주 바쁘
게 하루를 보낸다. 66년생 새로운 희
망이 생기는 날이다. 78년생 스트레
스 받지 말고 넘길 것은 넘겨라.

45년생 약속은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57년생 마음속에 꽂아
놓았던 화살이 날아간다. 69년생 뜻밖의 귀
인을 만나 도움을 받는다. 81년생 작
은 일에도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

49년생 조건만을 보지 말고 다양하게
보라. 61년생 작은 정성이 먼 훗날까
지 영향을 미칠 때이다. 73년생 눈치
껏 살피고 다가가야만 한다. 85년생
진실만큼 숨기고 시치미를 떼라.

40년생 길조심을 해야 할 때. 외출 자
제. 52년생 주변의 도움 받아 목표를
달성하는 격이다. 64년생 행운의 여
신이 다가오니 준비하라. 76년생 패
기는 좋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43년생 서로의 대립은 서로가 말하는
길이다. 55년생 남들이 경계하는 자
는 일단 말리하라. 67년생 인간적인
마음을 부각함이 좋다. 79년생 눈물과
감정이 많아 해가 될 때이다.

46년생 부부갈등은 양보와 이해심이
해결책이다. 58년생 질서와 절차 따
라 나가야만 한다. 70년생 결과를 이
정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접어라. 82
년생 우정의 소중함 느껴질 듯.

50년생 잠시라도 기분 전환이 필요하
다. 62년생 확장보다는 현상을 유지
하는데 힘써라. 74년생 성의를 보아
서도 곧 좋은 소식이 온다. 86년생 아
름다운 데이트를 할 시기이다.

41년생 상대방 자존심도 함께 가 있는
법. 53년생 역성 들어줄 필요는 없을
듯. 65년생 호전되니 인내와 노력을
덧붙여라. 77년생 직장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될 수도.

44년생 쓸쓸한 마음을 진정시켜야 한
다. 56년생 스스로를 낮추면 오히려
이미지가 높아진다. 68년생 다른 사
람을 위하여 보답을 받는다. 80년생
아려울수록 동료들과 화합하라.

47년생 선부른 행동은 사태를 악화시
킨다. 59년생 미련 일을 처리하는 하
루가 된다. 71년생 생각하지 않은 기
회가 도래한다. 83년생 매사에 겸손
하고 예치롭게 보여야 유리하다.

3월 29일 (음 2월 25일)



머@세상

장수의 비결

임표는 술도 담배도 멀리했는데 63세
에 죽었고, 주은재는 술을 즐기고 담배는
멀리했는데 73세에 죽었다.

모택동은 술을 멀리하고 담배를 즐겼
는데 83살까지 살았고, 등소평은 술과 담
배를 즐겼는데 93세까지 살았다.

그리고 장개석 군대의 부사령관을 지
낸 장학량은 술과 담배, 여색을 모두 가
까이 했는데도 103세까지 살았다.

현재 중국에는 128세나 되는 최고령
의 할머니가 살고 있다. 그 할머니를 만
난 인민일보 기자가 물었다.

"할머니, 건강 장수의 비결이 뭡니까?"
이 할머니의 대답에 10억이나 되는 중
국인 모두가 쓰러지고 말았다.
"응, 담배는 건강에 나쁘니까 피우지

만! 그래서 나도 5년전에 끊었어. 하지만
섹스는 적당히 즐긴다네."

제비의 해석

어느 제비가 성당에 가서 신부님께 고
해성사를 했다.

제비 : 신부님, 옆집 부인과 거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신부 : 그래, 간음을 하셨나요?

제비 : 아뇨, 그냥 문지르기만 했습니다.

신부 : 문지르는 거나 벌고 하는 거나
다를 게 없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가졌
느냐가 중요하합니다. 속죄의 의미로 성모
송 3번 외우고, 자신함에 2만원을 넣으
십시오.

고해성사를 마친 제비는 죄를 뉘우치
며 성모송을 3번 외운 후, 자신함에 다가
가서 그냥 손만 문지르는 것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신부가 물었다.

신부 : 왜 속죄금을 넣지 않고 손만 문
지르세요?

제비 : 신부님 말씀이 문지르는 거랑
넣는 거랑 같다고 하셔서...

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사장 발행·편집인 申龍浩 편집국장 李斗憲
대표 전화 (062)720-1000 · 구독 신청 및 배달사고 720-1098-99
기사 제보 (062)720-1050-56 사회2부 (062)720-1043-44 서울지사 (02)704-2166
FAX (062)720-1080-82 문체부 (062)720-1070-72 FAX (02)704-2167
논설실 (062)720-1032 전산팀 (062)720-1033 인쇄처 다원 인쇄
정치부 (062)720-1060-62 사진부 (062)720-1040 E-mail:jndn@chol.com
경제부 (062)720-1065-67 광고국 (062)720-1016-17
사회부 (062)720-1050-56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704-9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긴급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전화상담 133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아동학대 예방센터 1577-1391
▷ 노인학대 예방센터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39
▷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232-3117
생활정보전화
▷ 우체국 민원 1300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자원봉사센터 1365
▷ YWCA가정법률상담소 527-0011
▷ 인광 알곡을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가정여탁지원센터 351-1206
▷ 수도 고장신고 123
▷ 전기고장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ARS) 360-8114
▷ 월드컵내 1544-7788
▷ 대한항공 광주공항 942-0111
▷ 아시아나 광주공항 941-5511
▷ 전곡여객터미널 1544-1114
▷ 전남도청 (061)286-2000
▷ 광주시청 223-3000
▷ 전남대병원 220-6900
▷ 조선대병원 220-3114